

연기도전 김희재 “솔직히 ‘잘한다’는 얘기 듣고싶죠”

MBC TV 주말극 ‘지금부터 쇼타임’서 순경 ‘이용렬’ 연기 박해진 조연 큰 힘...‘미스트롯’ 출신 정동원과 서로 응원

트로트가수 김희재(27)에게 ‘배우’라는 타이틀은 아직 낯설다. 어렸을 때 막연히 연기자란 꿈이었지만, 막상 도전해보니 만만치 않았다. 23일 오후 8시40분 첫 방송하는 MBC TV 주말극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처음으로 연기 맛을 봤다. 가수는 다양한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현장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면, 배우는 다양한 직업을 연기하며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다”고 즐겼다.

“솔직한 마음은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만, ‘나쁘지 않았다’는 반응만 나와도 감사할 것 같다. 처음에는 ‘선배님, PD님이 못한다고 혼내면 어떡하지?’ 걱정했다. 이형민 PD님이 ‘희재씨 마음대로 편하게 하세요’라고 해줘 큰 힘이 됐다. 현장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스스로 미숙한 걸 알아서 대중들이 봤을 때 ‘잘 했다’는 얘기를 듣기는 어렵지 않을까. ‘노력한 게 보인다’ ‘나쁘지 않네’ ‘어울린다’는 반응만 들어도 감사하다.”

지금부터 쇼타임은 카리스마 미술사 ‘차차웅’(박해진)과 신동력을 지닌 순경 ‘고슬해’(진기주)의 코믹 수사극이다. ‘힘센여자도 봉순’(2017) 이형민 PD와 ‘쌍갑포차’(2020) 하유이 작가가 만들었다. 김희재는 강국파출소 순경 ‘이용렬’로 분했다. 슬해의 부사수이자 순찰 파트너로 가끔은 뺨칠거리지만, 정의감 넘치고 씩씩하다. 용렬과 싱크로율은 70% 정도라며 “직업은 다르지만, 20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용렬은 나와 다를 게 없다. 친

구 만나고 연애하고 싶어 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김희재는 촬영 두 달 전부터 연기 수업을 받았다. 경찰 역을 맡은 만큼 액션스쿨에서 훈련에 매진했다. 특히 이 PD가 추천한 노희경 작가 드라마 ‘라이프’(2018)는 많은 도움이 됐다. “용렬이 순경에서 형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드라마를 참고했다”며 “초반에는 액션신이 없었지만 후반부에 추가 돼 재촬영한 장면도 있다. 용렬이 완연한 형사가 돼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이 있는데, 조금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내가 언제 한 손에 많은 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느냐. 20년 정도 운동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웃었다.

“첫 촬영 때 가장 힘들었다. 극본리딩할 때는 대사만 열심히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풀샷, 바스트샷 등 동선과 카메라 위치가 다양하지 않느냐.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 이동을 열 번 이상 하더라. 첫날 1~3회 분량을 찍었는데, 어떻게 연기하고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몰랐다. 예를 들어, 진기주 선배 원샷 찍을 때 내가 엄청 열심히 연기하곤 했다. 점점 현장이 익숙해지면서 편안해졌다. 미숙하지만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다.”

극중 러브라인도 관련 포인트다. 용렬은 동네에서 싸움을 말리다 우연히 ‘천예지’(장하은)와 마주친 순간 첫눈에 반한다. 그녀가 무당이라는 사실도 문제되지 않는다. “인간 김희재로서 보면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다.

예지는 차움을 좋아해 삼각관계가 이뤄진다. 상대방이 거절하는데 용렬은 직진만 한다”며 “현실에서 김희재는 상대방을 많이 배려한다”고 설명했다. “난 용렬과 달리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신중한 편”이라며 “오래 알고 지내다가 ‘잠깐 잘한다’ 느끼면 마음을 연다.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랑을 시작하면 직진한다”고 덧붙혔다.

가장 기대하는 장면으로 실연 당해 눈물 흘리는 신을 꼽았다. “집에서 인형을 두고 연습했지만 눈물이 안 나더라”면서 “촬영 직전까지 걱정이 많았는데, 상대 배우 눈을 마주치자마자 물음이 됐다. 실제로 이별하는 느낌이 들었다. 울먹울먹하며 눈물 흘리는 부분에서 감정이 잘 잡힌 것 같다. 첫 번째는 애절하게, 두 번째는 담담하게 눈물이 고일 정도로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선배 동료들과 호흡은 최고였다. 특히 친분이 깊은 박해진(39)에게 연기 조언을 많이 받았다. “사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현장에서도 편했다. 형이 베테랑이다 보니 조언을 많이 해줬다. 촬영 용어를 알려주거나, 다른 배우를 찍고 있을 때 옆에서 조금 더 예쁘게 나오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면서 “진기주 누나는 나와 붙는 신이 가장 많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말을 나눠서 다가가기 편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재는 지금부터 쇼타임 OST에도 참여했다. 차음 메인 테마곡이다. 박해진 주연 ‘폰대인턴’(2020)에 이어 두 번째 OST 참여다. 당시 윤종신의 ‘오르막길’을 재해석했다. “이번에는 신곡이다. 직접 출연하는 드라마 OST를 불러서 남달랐다”며 “차음의 마음을 대변한 느린 템포 곡으로 가성을 많이 썼다. 조금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했다. 김희재는 2020년 TV조선 오디션 ‘미스트롯’에서 7위하며 얼굴을 알렸다. 미스트롯 출신인 정동원(15) 역시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로 연기에 도전, 서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얼마 전에 동원이 우리 집에 놀러 와 수박주스 따라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며 “생각보다 ‘연기가 어렵지만 재미있다’고 하더라. 드라마 내용이라 캐릭터 설정 듣고 ‘그냥 너네. 잘 할 것 같다’고 했다. 동원이 한창 꾸밀 나이 아니냐. 옷을 좋아해서 ‘어디서 샀느냐’면서 물어본다”고 귀띔했다. 최근 화보집 ‘김희재 퍼스트 슈퍼노바’(from.제주)도 선보였다. 데이트 콘셉트로 꾸며졌으며, 김희재의 제주도 휴가·일상을 담았다. 예약 판매 당시 매진을 기록했다. 판매 페이지 오픈 전 1차 판매분 수량이 완판돼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어렸을 때부터 사진 찍

는 걸 좋아했다. 미스트롯 촬영 후 화보촬영할 때도 자연스럽게 ‘처음 해보는 거 맞아요?’라고 했다”며 “이번 화보집은 제주도에서 촬영했는데 일하는 느낌이 안 들었다. 제주도 자연 속에서 쉬며 ‘오늘의 나를 남긴다’고 생각했다. 스물여덟살 김희재를 기록하는 느낌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동안 내가 가진 재능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해 ‘만능’으로 불리고 싶다. 가수로서 계속 인기가 있지 않더라도 훗날 시간이 흘러 팬들의 칭찬, 대중들의 그때 그 시절 마음 속에 있었으면 한다. 계속 생각나고 ‘불수록 괜찮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감사하게도 연기에 도전했는데, 배우로서 계속 인사하고 싶다. 다음 작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뮤지컬도 하고 싶다.”

배우 윤계상, 뷰티 사업가와 오는 6월 결혼식



배우 윤계상(44)이 뒤늦게 결혼식을 올린다. 18일 소속사 저스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윤계상은 6월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가족, 지인들만 참석한다”고 알렸다.

지난해 8월13일 화장품 브랜드 논픽션 차혜영(39) 대표와 혼인신고 한지 10개월 여 만이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6개월 여 만인 올해 2월 말께 미국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윤계상은 지난해 결혼 발표하며 팬카페에 “아내가 될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든다”며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날 지켜주고 사랑으로 치유해줬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윤계상은 1999년 그룹 ‘god’ 멤버로 데뷔했다. 2004년 탈퇴 후 연기자로 전향했으며, 10년 만인 2014년 재결합해 god 활동도 겸했다. 영화 ‘비스티 보이즈’(감독 윤종빈·2008) ‘범죄도시’(감독 강윤성·2017) ‘유체이탈자’(감독 윤재근·2021), 드라마 ‘최고의 사랑’(2011) ‘굿와이프’(2016) ‘크라임 퍼즐’(2021) 등에서 활약했다. 디즈니+ 드라마 ‘키스 식스 센스’로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가수 김범룡, 19년 만에 정규 9집 발매

‘바람 바람 바람’의 가수 김범룡(62)이 19년 만에 정규 앨범을 낸다.

18일 소속사 톨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범룡은 내달 2일 정규 9집을 공개한다. 타이틀곡 ‘인생길’ 등 신곡과 리메이크 실곡 등 총 11곡이 실린다. 김범룡이 정규 앨범을 내는 건 2003년 정규 8집 ‘돈키호테’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9집엔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를 겪은 국민들에게 전하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는다.

이와 함께 김범룡은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콘서트도 연다. 5월 14일 오후 7시·15일 오후 5시 서울 목동 로운아트홀에서 2회 공연한다. 콘서트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김범룡은 “많은 국민들께서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든 것들을 나누고 눈물과 함박웃음이 함께하는 희망의 내일을 나누는 소중한 의미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범룡은 1985년 ‘바람 바람 바람’으로 데뷔해 인기를 누렸다. 양승경, 이선희, 장덕 등 가수들의 히트곡을 썼다. 듀오 ‘녹색지대’, 가수 진시몬 등의 프로듀서이기도 했다.

‘이 호흡 궁금하네’...박서준·아이유 영화 ‘드림’ 촬영 끝



‘극한직업’ 이병헌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박서준과 아이유가 주연한 영화 ‘드림’이 최근 모든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에 들어갔다고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이 18일 밝혔다.

박서준 축구선수 ‘홍대’ 아이유 PD ‘소민’ 역

‘드림’은 선수 생활 최대 위기에 놓인 축구선수 ‘홍대’가 홈리스 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물이다. 박서준이 홍대를 연기했고, 아이유는 홈리스 국가대표팀 결성부터 월드컵 도전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방송국 PD ‘소민’을 맡았다.

박서준은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이유는 “첫 장편 영화 촬영이었다. 다른 어떤 작품보다 많

은 추억이 쌓여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헌 감독은 “해의 로케이션까지 오랜 시간 공들여 작업했다. 그 과정을 함께한 배우·스태프에게 감사하다”며 “우리가 이 영화로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 관객에게 오롯이 전달되도록 후반 작업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엔 박서준·아이유 외에 김중수·고창석·정승길·이현우·양현민·홍완표·허준석 등이 출연했다.

‘드림’은 후반 작업을 마친 뒤 개봉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다.

나훈아, 데뷔 55년 기념 10개 도시 전국투어...‘드림 55’

9월 24일 광주여대체육관 콘서트 개최

가항 나훈아(72)가 데뷔 55년을 기념하는 전국 투어를 돈다.

18일 소속사 예아라 예소리(대표 윤종민)에 따르면 나훈아는 오는 6월 11~12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시작으로 전국 총 10개 도시에서 투어 ‘드림(Dream) 55’를 펼친다.

6월25일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7월2일 창원체육관, 7월9일 인천 남동체육관, 7월 16~17일 대구 엑스코 동관, 7월23일 안동체육관, 7월30일 고양체육관, 8월 20~21일 서울 KSPO DOME, 8월2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 9월24일 광주여대체육관 등을 돈다.

앞서 나훈아는 55년을 기념하는 앨범 지난 ‘일곱 빛 향기’도 지난 2월 발매했다. ‘드림(Dream) 55’라는 주제를 단 이 앨범엔 ‘맛짱’, ‘누랑’, ‘친정엄마(아내의 엄마)’, ‘사랑의 지혜’, ‘매우(梅雨)’, ‘끈(미련 콧방귀)’, ‘체인지(Change)’ 등 7곡이 실렸다.

예아라 예소리 윤종민 대표는 “나훈아는 본인 스스로 혼잣말처럼 ‘지나온 세월이 정말 꿈만 같다’라고 넋두리해 제목을 ‘드림 55’라는 이름으로 특별공연을 기획했다”면서 “답답하고 숨 막힐 듯 한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모두의 가슴을 후련하게 씻어 줄 열정의 일곱 빛 향기 무대가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처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시기에 태어난 이들의 출생신고에 오류가 많긴 하지만, 나훈아는 1950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첫 녹음은 1968년 ‘내 사랑’으로 확인된다. 심형섭 작곡의 이 곡과 ‘약속했던 길’로 데뷔해 ‘무시로’, ‘갈무리’, ‘잡초’, ‘고향역’, ‘가지마오’ 등의 히트곡을 내며 50여년동안 톱 가수로 군림해왔다. 정확히 따지면 올해가 데뷔 55년차, 내년이 데뷔 55주년이다.

나훈아는 2007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공연을 취소하고 두문불출했다.

그러다 11년 만인 지난 2017년 7월 새 앨범 ‘드림 어게인(Dream again)’을 공개했다. 동시에 전국투어 콘서트를 열어 매진행렬을 기록했다.

2020년 추석 연휴 기간 비대면 콘서트 KBS 2TV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통해 다시 한번 전국구 스타로 재조명됐다. 특히 같은 해 8월 발매한 새 앨범 ‘나훈아 아홉이’에 실린 ‘데스형’이 대중문화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오르내리며 그해 가장 큰 화제가 됐다.

이후 오프라인 콘서트 위주로 꾸준히 활동 중이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산세 가운데 대규모 콘서트를 열어 일부에서 갑론을박이 따르기도 했으나 부산 벡스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대구 엑스코 콘서트를 안전하게 성료했다.